해인사 3·1항일만세 주도

8·15 건국훈장 받은 前직지사주지 김봉률스님

◇직지사 주지시절의 포월당 김봉률스님(왼쪽 끝).

독립선언서 1만장 인쇄 배포
군자금 모금 체포 수차례 옥고

지난 15일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5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내 항일계열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김봉률스님(법명 포월당, 1897~1949)이 前 직지사 주지로 일제시대 항일운동에 적극 앞장섰던 행적이 밝혀졌다.

보훈처 광복절포상 독립유공자 공적서에 따르면 스님은 22세 되던 1919년 3월 해인사 홍하문밖에서 군중과 더불어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4월에는 강재호 박달준등과 독립선언서 1만여장을 인쇄하여 경남북일대에 배포하는등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1운동 이후 만주로 건너가 봉천성 유하현 고산자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국내로 돌아와 문경군 김용사등의 사찰을 중심으로 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되는등 수차례 옥고를 치른 것으로 밝혀졌다.

양아들로 알려진 일당스님(직지사 중암)이 저술한 〈라홀라의 사모곡〉이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독립운동사 8, 9〉권에 의하면 스님은 직지사 주지로 재임하던 당시 거액의 군자금을 모금하여 만해 한용운스님등에 전달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 사찰로부터 공금횡령이라는 오명을 쓰게됐으며 더욱이 해방후 김구선생측에서 활동했던 스님은 국내정치혼란의 와중에서 정적들의 모함에 의해 경찰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얼마후 입적했다.

이승만 정권이후 봉률스님의 항일운동의 공적이 계속 묻혀져 오다 속가 딸인 김죽자씨의 8년여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져 이번에 훈장을 추서받게 됐다.

불국사 CD등 타임캡슐 제작
경북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경상북도는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경북인의 삶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타임캡슐을 제작했다.

직경 1m, 높이 1.5m 크기로 첨성대 모형을 본따 만든 이 타임캡슐 안에는 불국사, 백암온천, 문경팔경 등 각종 문화재와 명승지가 컴팩트디스크에 담겨졌으며 유행복장과 경찰관, 소방관의 실물복장 등 1백 품목이 보관된다.

경상북도는 이 타임캡슐을 멸균·진공처리한 뒤 아르곤가스를 넣어 오랜기간 보관해도 변화되지 않도록 만들어 △문경새재 △경주통일전 △구미 금오산 등 3곳 가운데 1곳을 골라 오는 10월말께 묻기로 했다.

이 타임캡슐은 경상북도가 개도 5백주년을 맞는 서기 2396년에 4백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공개된다.

대구경북 BBS 운영위 구성

대구경북 불교방송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설조스님)는 지난 12일 지방국 운영위원 16명을 1차로 확정발표했다.

이날 위촉된 운영위원은 대구경북 5개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태고종 관암사 주지스님등 설립추진위원 7명을 비롯해 해인사(1명), 대구사원주지 연합회(1명)가 각각 확정됐다.

또 선본사 1명과 은해사 2명을 비롯 4개교구본사스님 각 1명을 추가 위촉키로 했다.

"컴퓨터로 보는 뻐아픈 역사"

나눔의집, 정신대 홈페이지 개설

코리아링크 제공

나눔의 집(원장 혜진스님)이 '정신대, 잊고싶은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라는 홈페이지를 지난 13일 개설했다.

정신대 홈페이지는 일장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정신대 할머니를 등장시켜 위안부로 끌려간 20만 한국여성의 한많은 세월과 뻐아픈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홈페이지는 △나눔의 집 △일제종군위안부는 무엇이었나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그날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림 △나의 생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중에서 나눔의 집에 삶의 터전을 잡은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림 8점과 한국일보사가 제공한 사진 17점이 치욕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있어 방문자의 눈시울을 젖게한다.

한국일보사의 도움을 받아 제작, 인터넷 신문 코리아 링크에서 제공하는 이 홈페이지는 나눔의 집 소식과 정신대 연구회(회장 정진성)의 협조를 얻어 매달 새로운 자료를 한글·영문버전으로 새롭게 단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눔의 집'의 홈페이지는 http://www.korealink.co.kr/jeonshin/w4/w4.htm로 접속하면 볼 수 있다.

김죽자씨가 회고하는 아버지 봉률스님

"사찰공금 유용 누명쓰고 입적 47년만에 명예회복 됐어요"

"모진 고문을 받은 얼마후 돌아가신 아버님은 임종시에도 나라를 저버리지 말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입적한 지 47년만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봉률스님의 속가 딸인 김죽자 보살(사진·55, 법명 법성화)은 훈장 추서 자체도 감개가 무량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봉률스님이 사찰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된 점을 기뻐했다. 직지사 주지로 재임하던 당시 봉률스님은 절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게 됐는데 이것이 광복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으로 쓰여진 것으로 공식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죽자보살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이 끝나자 마자 부모님 위패가 모셔진 통천사로 달려갔다. 같이 간 언니 김송자보살내외와 함께 부처님과 스님앞에 훈장을 바치고 합장한 얼굴에서는 만감이 서린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스님의 항일 행적을 찾기 위해 광복회관을 내 집 드나들 듯 하며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는 김보살은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께서 집에서 사흘을 계시지 못할 정도로 늘 독립운동에 열중하셨고 집에 오셨더라도 탈출구로 뒷문을 늘 열어놓으셨다는 군요"라며 8살때 돌아가셔서 생전의 기억나는 모습이 별로 없지만 강직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성품이었다고 아버지 봉률스님을 회고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안테나설치 명당자리 절근처

통신업체, 사찰 껴안기 '진땀'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 기존 통신업체는 물론 새 르 사업권을 받은 한솔PCS 등이 통신망 구성을 위한 안테나 설치 선점 지역확보를 위해 사찰 주지와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같은 경쟁아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사찰들이 거의 풍수지리에 따라 산을 등지고 앞의 시야가 탁트여있고 좌청룡 우백호가 호위하는 명당자리에 있어 바로 안테나 설치의 최적위치이기 때문. 안테나는 전파끼리 겹치지 않도록 세워야 하며 산을 등지면 뒤쪽 안테나에서 오는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좌청룡 우백호도 양옆 안테나의 혼신을 예방한다고.

그러나 안테나 철탑이 세워지면 산의 정기를 누른다는 믿음 때문에 사찰 근처에 안테나를 설치하기란 그다지 쉬운 일만은 아니다.

실제로 경북 상주시 동해사는 한국이동통신의 안테나 설치제안을 반대했고, 또 경북의성 비봉산 대곡사는 신도들의 반대로 안테나설치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안테나 시설을 맡은 담당자들은 평소 사찰과 보다 밀접한 접촉을 가지며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마음 사로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은〉

불교TV 가을개편

'…불교아카데미' '알고 믿읍시다' 신설
'김병조 이야기쇼' 등 4개프로 시간 변경

불교TV가 오는 9월 2일부터 가을 개편을 단행한다.

불교TV는 '동국TV 불교아카데미'와 '알고 믿읍시다' 등 2개 프로를 신설하고 구도드라마 '제공스님'과 '알기쉬운 교리강좌' 등 2개 프로를 폐지하며 '김병조의 이야기쇼' 등 4개 프로는 방송시간대를 변경한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에 방송되는 '동국TV 불교아카데미'는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불교교리와 불교학문을 체계적으로 강의하게 되며, '알고 믿읍시다'는 매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 안방을 찾아 불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불교상식을 올바로 전해 바른 신행생활의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매일 저녁 6시 35분에 방송되는 '저녁예불'은 종전 방송시간보다 10분이 늘어 25분간 방송되며 '김병조의 이야기쇼'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낮 12시 10분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같은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종전 주당 99시간 20분에서 106시간 15분으로 총 6시간 55분이 늘어난다. 따라서 평일 오전 9시에 방송을 개시해 한시간 앞당겨 방송이 시작되고 마감시간도 평일에는 밤 12시 10분에 토요일에는 밤 12시25분, 일요일에는 자정에 각각 종료된다.

해외불교

그리이스 정부 불교센터 이단판결
기독교 위주 종교법 '위헌논쟁'

최근 그리이스 정부는 '그리이스 불교협회'가 마운트아토스시에 불교센터를 건립한 것에 대해 '승인없이 사설 기도원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불교협회장인 해라 카로미리씨에게 3개월 실형을 선고해 심각한 종교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카로미리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종교법은 1930년에 파시스트 독재자였던 돈니스 메타시스가 국교인 전통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금지시키기 위해 마련한 종교법.

이에대해 카로미리씨는 "불교센터에서는 불교교리를 배우기 보다는 불교신자들이 명상수행에 정진하는 곳"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예정이며, 이것이 기각될 경우 유럽재판소를 통해 그리이스 정부의 종교탄압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재판소는 이미 그리이스 종교법이 위법임을 통보한 바 있다.

목탁소리

김 재 경 〈취재2부 기자〉

'저작권 주의보' 발효

불교계에도 '저작권 주의보'가 발효됐다. 이제는 일부 책이나 잡지, 신문들에서 사진과 미술도판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던 관행의 시정이 시급하게 됐다.

최근 ㅇ출판사가 성철스님의 얼굴사진을 작가의 사전허락없이 광고에 게재했다가 작가의 항의를 받고 고소까지 당할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ㅎ출판부도 89년에 펴낸 〈유마경강설〉에 불화 두 컷을 무단 게재했다는 이유로 몇달 전 ㅂ스님으로부터 고소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같은 종단에 몸담았던 스님으로서 창작품인지도 모호한 데다 몇년전에 이미 양해를 하고 마무리지은 사안을 뒤늦게 다시 고소라는 비불교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최근 일어난 이 두사건이 사진·도판의 저작권에 대한 교계의 주의를 환기시킨 사건이란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예전부터 불교집안에서는 남의 책이나 사진·도판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사용하는 측이나 원작자나 '불사에 사용한다는 공유개념'으로,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고 비교적 너그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출판물뿐 아니라 사진과 미술품(도판) 음악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작가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어 사진과 도판 사용에 대한 주의 및 대책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특히 사진분야에 대한 저작권법 발효는 불교계의 각종 언론매체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국내외의 각종 보도연감은 물론 출판·저널물에서 허가없이 사진자료를 인용해 써 온 교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사간의 자료공유 및 사진자료실 확장을 통한 자체 자료 확보에 힘쓰지 않는 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회전식(법륜)

(銀)염주지압반지 탄생 !

- 건강과 기도수행하며 소원을 이루는 반지 -

염불하는 공덕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성불하는 인연되어지이다.

염주 지압반지 특허출원

특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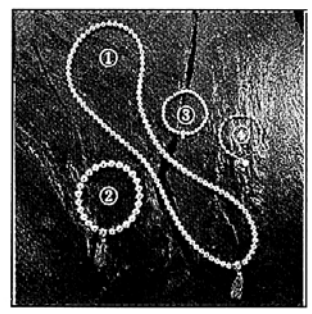
銀은 예로부터 世界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속에서 오늘날까지 지혜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銀은 우리 인체의 해로운 성분과 만나면 금방 색깔이 반응한다는 것과 인체의 해로운 650여종에 살균효과 또 임금님의 수라상에 은수저가 올라갔던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출발나마스떼에서는 불자님들의 건강와 기도하실 수 있도록 銀(92.5%)으로 만든 회전식 법륜 염주지압반지, 은단주, 합장주, 호신불 팔찌, 목걸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륜 회전식 염주 지압반지의 좋은점

(銀)은 92.5%로 된 회전식 법륜염주 지압반지는 지압효과를 볼수있는 침구가 안쪽에 있으며 바깥돌아가는 면에는 옴마니반메훔, 지장, 관세음 보살이 양각되어 전철, 버스, 목욕탕등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단주, 염주처럼 하나씩 돌리면서 수행 정진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 용이나 수계식때 불사보시용으로도 좋은 반지고 건강과 기도를 함께 수행하며 자신의 근기에 따라 소원을 이루는 반지 입니다. 염불하며 성불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신 불자님에게 꼭 필요한 수행기구 입니다. 14k, 18k는 별도 주문 제작하여 드립니다.

자매품

1 은염주 은(銀)92.5% 규격: 8mm ₩96,000
2 은성불 단주 은(銀)92.5% 규격: 10mm ₩50,000
3 합장주 은(銀)92.5% 규격: 5.6mm ₩17,000
4 호신불팔찌 은(銀)92.5% 규격: 5.6mm ₩15,800



▪판매원 : 출발나마스떼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5번지 삼익패션타운4층 153호 TEL:779-1932 · 779-1938 FAX:779-1932
사무실 : 대표전화 318-3522 · 318-3523 FAX:779-1440

▪지역대리점 : 서울 (종로)제일사274-0797 (종로) 진은사 273-4864 광주성민유통 062-222-5537 대구제일사 053-252-4370 부산세진051-644-7151 은혜공방 051-241-2135 부산불교전시관 051-647-7393 제주 한라불교신문사 064-55-2203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히 있는 건첨한 과학자와 관난 공력을 넘어선 학식,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풍만증 90.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풍만증, 풍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인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온반지 84%, 목목 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신문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吳是空 合掌

천혜의 전원주택

주택정면

- 충남 예산군 대흥면 (전방150m 예당 저수지 33만평)
- 지목 : 대지 + 전 (76 + 204 = 280평)
- 가옥상태 A급 (정원 잔디 + 조경 + 인공저수지2평)
- (현대식) 돌담집 : 집앞 채전과 차고 있음.
- 집앞에 시원한 광활한 저수지(예산읍에서 15분거리)
- 현재 사람 살고 있음. 최고 A급 전원 주택
- 금액 : 4,800만원

투자할 만한 전원 주택

-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금액 2,800만원
- 지목 : 대지 + 전(대지164평 + 전218평) 計 382평
- 서울에서 약 1시간 30분거리
- 2차선 포장 도로에서 100m 위치
- 집앞에 200m지점 큰 저수지가 있고, 집 뒤에는 산이 있음
- 주위 경관수려, 달래강 근접

연락처 TEL : (02) 420-5474~5 FAX : (02) 413-7295 B. B : 012-272-0025 불자 안태진 합장